

# 星州 老石洞 道高山

## 磨崖三尊佛像과 如來坐像

鄭 永 鎬

一、

이 老石洞의 磨崖佛像들은 경상북도 星州郡 船南面 老石洞 道高山 東쪽 중턱에 자리잡고 있다. 즉 老石一、二洞 마을에서 西쪽을 바라보면 가파르게 솟은 道高山이 보이고 이 山 중턱의 岩石群 가운데 위치하였는데 이 山의 標高가 불과 三四七·二m라 하나 이곳 일대가 低地帶이기 때문에 우뚝 솟아 보이며 磨崖佛이 있는 곳까지도 거리는 一km에 불과 하지만 금경사를 올라가는 길이어서 힘이 좀 드는 편이다.

이곳은 漆谷郡 倭館읍에서 洛東江을 건너 星州行 車道로 약 四km가다가 왼편 洛東江쪽으로 접어들어 江岸을 따라 地方小路로 二km쯤 가면 되는데 이곳 老石洞에서 倭館의 中·高等學校에 通學하고 있는 學生들이 있어서 倭館읍을 중심한 이 일대에서는 「老石洞」 혹은 「道高山」이라 하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洞里이다.

이 佛像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記錄에도 없으며 주위에서도 널리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一九七七年 一〇月 博物館大學 講義때 현재 倭館읍내의 純心高等學校의 美術教師로 봉직하고 있는 洪鉉旗先生으로부터 「磨崖佛이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를 잠깐 들은 바 있으며 이후 洪先生이 다시 佛像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연락을 해주어서 一九七七年 二月三日과 一二月一三日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하였던 것이다.

洪先生은 弘益大學校 美術大學 출신으로 一〇여년전 필자가 弘大에 出講할때의 師弟之間이어서 잘 알고 있는 터이다. 그러므로 博物館大學 講義가 끝나자 필자에게 찾아와 磨崖佛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후 편지에 倭館에서 그리 멀지 않은 道高山에 磨崖佛像數座가 있음을 現地踏查에서 확인하였으니 한번 내려와 조사해 보라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美術大學출신 답게 磨崖佛 四座가 배치된 構圖로 스켓치를 몇지게 하여 편지와 함께 넣었으므로 필자는 磨崖佛이 存在함을 쉽게 알 수가 있었다.

필자가 倭館에 내려가서 洪先生을 만났을때 들은 이야기지만 洪先生이 이러한 정보를 입수하게 된것은 이곳 老石洞에서 純心高等學校에 다니고 있는 學生으로부터 였다는데 여름방학 숙제로 文化財문제를 내었



圖一. 星州 老石洞 道高山 位置圖

더니 한學生이 부처님이 조각되어 있는곳이 있음을 알려 왔다는 것이다. 이후 곧 現地를 踏查하여 佛像들의 存在를 확인 하였으며 그후 서울에서의 博物館大學 講義가 끝난뒤 洪先生이 두차례나 現地를 踏查, 再확인하여 필자에게 편지와 現場스케치를 보냈다는 것이다.

一 二月初 善山郡지역의 遺蹟조사를 마치고 上京하는 길에 미리 연락한 대로 三日 오후 三시경 善山郡 文化公報室의 趙室長과 함께 倭館 純心高等學校에 들러 洪先生을 만나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들으며 道高山 現地까지 안내를 받았는데 이날은 날씨도 흐렸었지만 오후 늦은때였으므로 磨崖佛들을 확인하며 간단한 촬영 정도로 끝내고 다음 再調査의 기회에 본격적인 조사를 생각할 수 밖에 없었다.

이 磨崖佛들의 위치가 山東편이어서 一二月 오후 四시 이후가 되면 山中턱부터 洞里까지 차차 어두어진다. 그러므로 이때는 이곳의 이러한 주위 諸條件만을 파악하였으며 다시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一 二日 夜間列車편으로 서울역을 출발, 一 三日 새벽 四시에 倭館역에 도착하여 아침 七시부터 道高山에 올라갔는데 이때 磨崖佛이 있는 山中턱에서 東쪽 洛東江을 내려다 보니 江물은 보이지 않고 길은 안개만이 며 그속에 군데군데 높은 山봉우리가 우뚝우뚝 솟아있어 마치 東洋畫를 보는듯하여 일행은 감탄을 연발 하였었다. 이때 指導教授로 同行하였던 車文燮선생이 天然色으로 이 경치를 촬영한 사진이 하도 잘되어 마치 山水畫 한폭같이 크게 확대 인쇄해서 현재 여러사람이 나누어 가지고 있다. 一 三日의 조사는 本校 博物館의 尹蓮重助教와 史學科 李天孝(四年) 車興道(三年) 君등 여러 남·여 학생이 참가 하였으므로 實測과 촬영 拓本을 비롯하여 주변의 조사까지 대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었다.

佛像들은 巨大한 花崗岩의 東北쪽 一面(폭 五m, 높이 五m)을 폭 三·五m, 높이 三m 정도로 다듬고 조각 하였는데 淺刻이어서 一見하여線刻한 것으로 잘못 알기 쉽다. 그리고 東北向의 佛像들이므로 사진은 한여름 오전에 촬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을 참고로 알리려니와 拓本에 있어서도 岩壁이 높고 넓기 때문에 사다리가 최소한 二개는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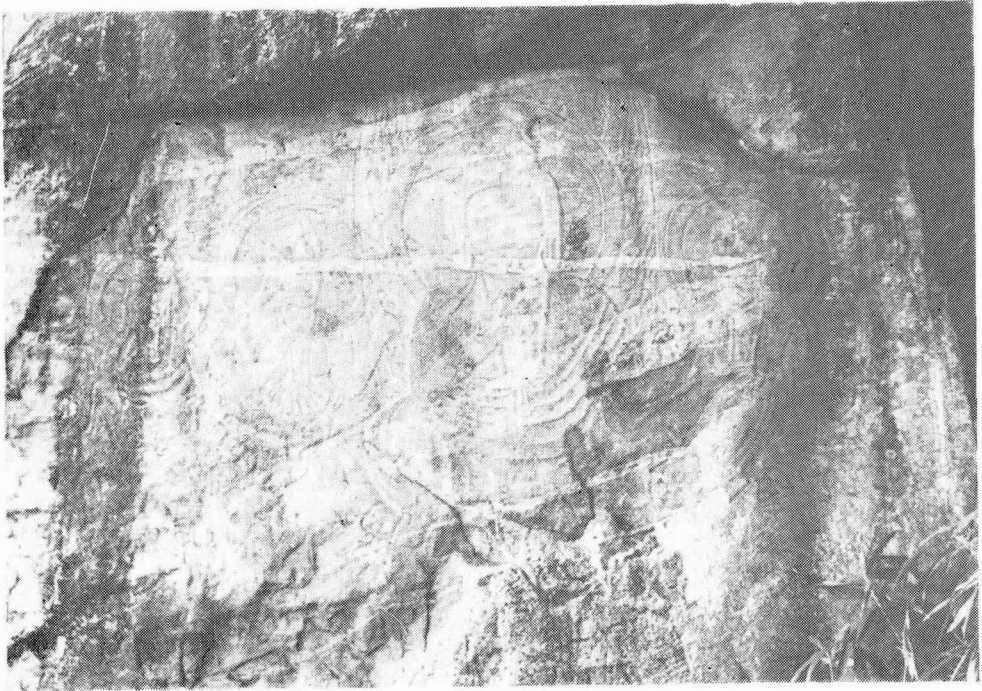
一 三日의 조사 때는 오전이기는 했으나 겨울철이어서 사진은 효과적이지 못되었으며 拓本은 날씨가 따뜻하여 다행이었는데 老石洞에서 現場까지 사다리 二개와 양동이에 물을 운반하는 일이 쉽지 않았으며 이때 우리 학생들의 노고가 많았다.

## 二、

제목에서 곧 알 수 있드시 이곳에는 三尊像과 그 옆에 왼쪽으로(向해서) 또 하나의 如來坐像을 조각 하였는바 이 四座의 造像에서는 역시 三尊이 중심이 되고 如來坐像은 별도의 配置로 보는것이 좋을것 같다.

三尊像은 중앙에 阿彌陀如來坐像을 主尊으로 모시고 左·右에 각각 觀世音菩薩坐像과 大勢至菩薩坐像을 脇侍로 배치 하였는데 三尊이 모두 넓직한 圓帶의 頭光을 갖추고 있어 異色の이다.

本尊如來坐像만은 頭光 밖으로 양쪽 무릎 부분에서 올린 擧身光이 표시되어 있는데 그 윤곽은 線刻이고 頭光과의 사이에는 火焰紋이 彫飾되어 있으며 이 舟形擧身光의 寶珠形 頂上部는 이 磨崖岩壁위에 마치 蓋石처럼 얹쳐있는 別石의 岩面에 연결 되도록 표시되어 있어 흥미롭다. 머리는 素髮로 肉髻가 큼직하며 相好는 圓滿하나 兩眼과 鼻樑 口唇 등이 磨損으로 희미한데 이곳 三尊의 相好 各부가 모두 그러하다. 아마도 淺刻이어서 오랜동안 風磨雨洗로 손상된 것이 아닌가 한다. 양쪽 귀는 윗부분은 머리에 가리어 보이지 않고 길게 느리워진 귀받부분만이 보이며 타원형으로 구멍이 뚫려져 있는바 이러한 귀의 형태도 三尊이 모두 같다. 法衣는 通肩이며 앞가슴 밑으로 衣帶의 結帶가 보인다. 왼쪽 팔에 걸쳐진 法衣의 衣文이 크게 圓弧를 그리면서 무릎으로 흘렀는데 왼쪽 무릎과 팔 부분의 岩面이 파손되어 뚜렷한 형태를 알 수 없고 따라서 왼쪽 手印도 알 수가 없다. 本尊의 衣文에서 한가지 注目되는 것은 오른쪽 어깨 위에 걸쳐진 형식의 衣文이 표시 되어있는데 이러한 衣文은



圖二，星州 老石洞 道高山 磨崖佛全景



圖三，中央 本尊如來坐像 拓本

韓國의 佛像에서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注意를 끈다. 오른쪽 手印은 손  
을 가슴에 들어 拇指와 中指끝을 맞대고 있는데 그 팔은 어깨의 접친 衣  
文 밑에 부터 露出된 상태로서 마치 溫氣가 흐르듯 부드럽다. 무릎 밑부  
분이 岩面의 파손으로 完全하지 못함의 유감인데 오른쪽 무릎 밑에 單葉  
伏瓣의 蓮華紋이 약간 남아 있어 보이므로 본래 蓮華座를 구비 하였었  
음을 알 수 있겠다.

왼쪽 脇侍의 觀世音菩薩坐像은 오른쪽의 本尊像을 向하여 側面像을  
취하였으므로 왼쪽 귀만이 보인다. 머리에는 寶冠을 썼는데 양쪽에는  
蓮봉을 낮게 장식하고 중앙에는 높직하게 蓮봉을 장식한 단조로운 冠이  
머리 寶冠 밑으로 내려진 頭髮이 어깨 위에 없쳐져 있다. 가슴에는 通  
肩의 굽직한 天衣帶가 표시되어 있고 衣文은 무릎 중심부에 약간 보일  
뿐 胴體의 오른쪽 중간 부분이 크게 파손 되어서 어느 쪽에 어떻게 衣文  
이 펼쳐져 있는지를 알 수 없다. 相好는 윤곽이 뚜렷하며 눈매만이 확  
실하다. 手印은 오른손을 거의 눈높이까지 들어서 蓮봉을 받들어 本尊  
에 向하고 있으며 왼손은 어깨쪽에 들어 蓮봉이 있는 가느다란 연꽃기  
하나를 잡고 있다. 蓮華座는 伏蓮座로 중심에 큼직한 單葉大瓣을 두고  
그 左·右로 單瓣을 장식 하였는데 그 形式이 古態를 보이며 마치 新羅  
統一直後の 작품들인 碑岩寺發見的 癸酉銘全氏阿彌陀佛三尊石像(국보  
제一〇六호) 己丑銘阿彌陀如來諸佛菩薩石像(보물 三六七호) 彌勒菩薩半  
跏石像(보물 제三六八호)과 鳥致院 蓮花寺發見的 癸酉銘三尊千佛碑像  
(국보 제一〇八호) 등에서 보는 蓮瓣과도 비교할 수 있는 古式의 蓮華座  
라 하겠다.

오른쪽 脇侍인 大勢至菩薩坐像도 역시 왼쪽 本尊을 向하여 오른쪽 側  
面像을 취하였으므로 오른쪽 귀만이 보인다. 왼쪽의 觀音像과 같이 세  
개의 蓮봉을 장식한 寶冠을 쓰고 어깨에는 머리에서 내려진 頭髮이 없  
쳐져 있다. 通肩의 衣帶가 뚜렷하게 표시 되었고 臍前에는 結帶가 보이  
는데 그 주변에 結帶에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 衣文이 여러가닥으로 펼쳐  
져 있어 注目된다. 手印은 왼손을 어깨높이 만큼 들어 主尊을 向하여 蓮



圖五. 右側脇侍菩薩拓本



圖四. 左側脇侍菩薩拓本

봉을 받들고 있으며 오른손은 가슴위로 들어 손끝을 왼쪽손의 向을 向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菩薩은 蓮華座위에 앉아 있으나 발목을 엮고 있어 마치 어디에 걸터앉아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데 이렇듯 발을 엮고 있는 交脚像은 韓國에서는 아직까지 調査된 바가 없었던 새로운 예로 또한 注目된다 하겠다. 蓮華座는 伏蓮으로 장식하였는데 圓狀한 蓮瓣을 중앙에 두어 그 瓣內에 양쪽 발을 엮고 있으며 그 左·右로 單蓮을 彫飾하였다. 여기의 蓮瓣 역시 豐麗하면서 瓣端의 날카로운 作風이 統一直後 作品들의 蓮瓣과 比較할 수 있는 古態를 보이고 있다.

또 하나의 如來坐像은 大勢至菩薩의 바로 옆에 조각하였는데 여기에 도 三尊像의 頭光과 같이 넓직한 圓帶의 頭光이 갖추어져 있다. 正面像을 취하고 있으므로 獨尊임을 곧 알 수 있겠는데 素髮의 頭頂에는 圓狀한 肉髻가 있고 圓滿한 相好의 윤곽은 뚜렷하나 各部는 磨損되어 口唇만이 완연하며 길게 느리워진 양쪽 귀는 三尊像과 같이 구멍이 뚫려져 있다. 목에는 二道의 표식이 있고 通肩衣帶가 가슴에 표시되어 있으며 오른쪽 어깨에 걸쳐진 衣文이 보이는데 이것은 三尊像에서의 中央本尊 如來의 오른쪽 어깨의 걸쳐진 衣文과 같은 형식으로 보인다. 手印은 오른쪽 손을 가슴에 들고 왼쪽 손은 왼쪽 무릎에 내린 듯 하나 이 부분의 岩面이 파손되어 확실하게 알 수 없다. 이 如來像에서 가장 흥미를 끄는 것은 앞은 자세인데 結跏 跏趺座한 것도 물론 아니고 半跏像도 아닌 이른바 安座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점이다. 어디에 걸터 앉은 듯한 자세로서 오른쪽 다리는 왼쪽 보다 더 내리고 발끝을 蓮華座위에 놓고 있다. 왼쪽 다리는 結跏座에서 약간 흐트러져 오른쪽과 같이 발끝을 밑으로 向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衣文은 양쪽 발목까지만 남기고 양쪽 무릎과 다리를 모두 가리면서 밑으로 흘러 간간히 펼쳐진 衣端을 보이고 있다. 尼座는 單葉伏瓣의 蓮華座로 중심에 圓狀한 一瓣을 두고 그 左·右에 五·六瓣의 單蓮을 장식 하였는데 流麗하고도 날카로운 瓣端의 형식은 三尊像의 蓮瓣들과 다를바 없다.

이상과 같이 三尊像과 獨尊의 如來坐像을 살펴 보았는데 양식이나 수

법으로 보아 이들은 모두 同時에 造成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여기서 磨崖佛들을 중심하여 우선 두가지 점에 주목해야 될것인바 그것은 첫째, 岩面에 彩色를 한것과 둘째는 前室이 造營되었던일에 대해서다. 현재도 三尊의 本尊을 중심하여 岩壁全面에 붉은스레한 彩色가 보이고 있으며 간혹 綠·靑色의 흔적도 확인할 수 있다. 現老石一洞 朴仁圭洞長(四五才)의 말에 의하면 어렸을때 친구들과 이곳에 와 보면 赤色과 靑色의 色彩가 완연하였는데 六·二五동란 이후 점차 彩色가 가서졌다고 한다. 現地 住民들의 증언이나 또 현재의 상태로 보아도 여기에는 彩色했었음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이곳의 佛像은 彩色磨崖佛로도 아주 貴하다고 하겠다.

둘째로 前室의 造營문제 磨崖佛 앞에 직경 三〇cm, 깊이 一·一cm의 홈이 파여진 礎石이 있어 곧 前室의 기둥을 배치 하였음을 알게 한다. 지금도 주변에서 많은 기와장을 수집할 수 있는데 洞民들의 말에 의하



圖六. 安座한 如來坐像拓本

면 전에는 기와장이 더 많아 여기서 기와를 주어가서 가루를 만들어 놓  
그릇들을 뒤엎었다고 한다. 여러가지를 종합해 볼때 木造瓦屋의 前室이  
있었음은 분명하다 하겠다.

이들의 造成年代에 대해서는 앞에 살펴본바와 같이 蓮華座에서 古式  
임을 느끼겠는데 相好와 各部彫刻에 있어서도 古態를 볼 수 있다. 그리  
고 이곳에서 그리 멀지않은 八公山에 軍威三尊石窟이 있어 이들과 比較  
하게 되는데 統一初半인 七世紀 후반의 所作으로 보아도 크게 無理는  
아닐것으로 史料된다.

磨崖佛을 중심한 이곳 바로 주변에는 寺·庵을 세울만한 넓은 자리가  
없고 山 밑으로 二五〇m쯤 내려가면 다소 넓직한 구축한 臺地에 廢寺  
址 하나가 있다.

洞里에서도 이곳을 「옛절터」라고 일컬어 온다고 하는데 현재 여기에  
는 높이 약 三—四m의 石築이 三五m정도 남아 있고 주변에는 磁器와  
瓦片 등이 散亂하며 石塔材가 뒤섞여 있어 寺址임을 곧 알 수 있다.

石築은 自然石을 고르게 쌓았는데 허물어진 곳이 많으나 原形은 짐작  
할 수 있다.

石塔材는 屋身石 一石과 身·蓋가 同一石으로 造成된 部材 一石이 있  
는데 屋身石에는 各面に 兩隅柱가 模刻 되었을뿐 다른 아무런 彫飾이  
없다. (高 三六cm, 幅 三三cm, 隅柱幅 七·五cm) 身·蓋 同一石部材는  
屋蓋石위에 屋身을 造成하여 高麗時代에 들어서의 建造物임을 곧 알  
게 한다. 蓋石은 屋蓋石받침이 四段이고 그 위의 屋身에는 各面に 兩隅柱  
가 刻出되어 있다. 落水面이 急傾斜인것은 알겠으나 四隅의 轉角部가  
모두 크게 파손 되어 風磬石의 有·無와 정확한 규격등을 알 수가 없다.  
(蓋石의 現一邊長 五九cm, 身石高 九cm, 幅 二九cm, 隅柱幅 六·五cm)  
그러나 現상태로 보아 높이 二m 정도의 小規模의 石塔이었을 것으로 짐  
작된다.

이 廢寺址와 前記 磨崖佛과는 어떠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年代의 差異로 보아 麗代에 이르러 이곳에 寺刹을 건립하고 磨



圖七. 廢寺址石塔材

崖佛들에 禮佛했을 것인바 여기서 약 五〇m相距에 샘물이 있어서 역시  
당시의 食水문제도 짐작케 한다.

序頭에서도 말했듯이 이곳은 바로 洛東江 沿邊이며 그리 멀지 않은곳  
에 八公山 軍威三尊石窟이 있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욱 관심을 끌리게  
하는것은 洛東江을 거슬러 올라가면 善山郡 海平面, 桃開面 등이 되고  
이곳에는 新羅 佛敎의 初傳地域인 道開洞 毛禮家 遺墟와 井址 등의 遺蹟

이 있고 阿道和尚의 創建이라 전하는 桃李寺가 있으며 이 밖에 많은 佛蹟이 密集되어 있는 事實이다. 이곳 磨崖佛의 向이 東北間인 것도 岩面의 向때문이라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혹시 佛教初傳地인 善山쪽을 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여하튼 이곳의 位置문제도 중요하며 磨崖佛 자체에 있어서 彩色, 前室構造 등 중요한 문제가 많으므로 첫째는 이 磨崖佛을 중심한 주변 일대의 면밀한 조사가 先行되어야 할 것이며 다음으로 인근 佛蹟과의 연관 등 보다 깊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思量되는바 여기에는 우선 이곳의 査調査者로서 간단히 그 存在와 重要性만을 略記해 둔다.

磨崖佛들의 實測値는 다음과 같다. (cm)

本尊現高一四〇、頭高五四、肩幅七五、胸幅五〇、膝幅一一〇、膝高四三、頭光徑九〇。

觀音菩薩像現高九〇、頭高三三、肩幅四六、胸幅二四、膝幅四六、膝高一二〇、頭光徑五五。

大勢至菩薩像現高八〇、頭高三三、肩幅三七、胸幅二三、膝幅五六、膝高一六、頭光徑五四。

如來坐像全高一一五、頭光徑四三。

(檀國大學校 博物館長)